

제24회 세계 결핵의 날 기념행사 한국언론재단서 성황리에 개최

글 박연숙(본지 기자)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대한결핵협회는 3월 24일 제24회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보건 관계자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2시부터 결핵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준형, 정종철, 오지현 씨와 대한결핵협회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가두행진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12시 30분부터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두행진에 참여해 전단지를 함께 배포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2시부터 시작된 본식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저 역시 결핵이 사라진 질병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결핵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페이지 || 제24회 세계 결핵의 날 행사 전경.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① 제18회 복십자대상 공로부문 수상자인 이기용 전 대한결핵협회 이사가 김성규 본회 회장으로 부터 상패를 전달받고 있다.
- ② 제18회 복십자대상 봉사부문 수상자인 최향순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지방간호사무관이 김성규 본회 회장으로 부터 상패를 전달받고 있다.
- ③ 결핵 홍보대사로 위촉된 텔런트 선우유너, 개그맨 박준형, 정종철, 오지현 씨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촉패를 받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김성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결핵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결핵퇴치라는 긴 마라톤에서 결승점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복십자대상 2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상 2명, 복지부장관상 84명 등 총 9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복십자 대상 공로부문은 대학생들의 결핵유병률 파악 및 국가결핵관리사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 결핵퇴치에 기여한 이기용 전 대한결핵협회 이사가 수상하였으며, 결핵균 검사결과 관리에 전산화를 도입하여 환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결핵퇴치에 기여한 최향순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지방간호사무관이 봉사부문을 수상했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에는 DC scout 카드를 제작, 보급하여 결핵사업기금조성에 기여한 이상재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사무국장, 30년간 일선 현장에서 결핵퇴치사업에 종사한 박성수 경성남도 하동군보건소 지방보건사무관이 수상하였다.

30여년간 결핵자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백호기 씨와 대한결핵협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썸 인쇄의 질을 높인 한국조폐공사는 대한결핵협회장상을 수상했다.



- ④ 세계 결핵의 날 식전 행사로 진행된 가두 행진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직접 결핵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결핵 홍보대사.
- ⑤ 시청 역사에 마련된 홍보 패널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는 결핵 홍보대사. 결핵 홍보대사의 깜짝 등장으로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전시물을 관람하였다.

수상자 시상식에 이어 탤런트 선우용녀, 개그맨 박준형, 정종철, 오지현 씨를 결핵 홍보대사에 위촉하는 위촉식이 있었다. 유시민 장관은 이들 홍보대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즉석에서 소감을 부탁하는 등 행사 분위기를 이끌었다.

1969년 대한뉴스 결핵 홍보 광고를 촬영한 바 있는 탤런트 선우용녀 씨는 “살다보니 이런 패도 받게 된다”며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같같이 패밀리리를 대표해 본 행사의 사회를 맡기도 한 박준형 씨는 “어렸을 적에 매년 크리스마스 썰을 샀다. 썰을 안 사는 친구들에게 사도록 무언의 압력을 주기도 했다”며 썰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밖에 ‘우리나라 결핵현황과 문제해결’을 주제로 한 서울대 의대 심영수 교수의 강연과 ‘행복한 가정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 가정문화원 김영숙, 두상달 강사의 기념 강연을 끝으로 제24회 세계 결핵의 날 공식 행사는 막을 내렸다. †